

2025년 우리대전같은책읽기 도서선정 O.T.

■ 개 요(오픈채팅방_2025. 7.3)

1) 위원 : 23명

- 시민위원 : 13명
- 기획팀 : 5명
- 희망의책 이사 : 7명

2) 내용 : 추천 후보책 소개(*별첨)

3) 회의

- 1차 : 7월 11일(금) 8pm, 온라인 / 비문학 : 사회과학, 역사
 - 2차 : 7월 12일(토) 8pm, 온라인 / 비문학 : 자기계발, 인문학, 교양서
 - 3차 : 7월 13일(일) 4pm, 공감이음 / 문학 : 어린이 · 청소년, 소설
- ※ 회의는 모두 참여가능 하십니다, 가능한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후보 7권의 회의 진행시 규칙

- 회의에 참석하실 때는 되도록 책을 읽고 오셔야 합니다.
- 후보 7권의 경우, 구분을 다양하게 하며 되도록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한 권의 책 선정기준

- 토론주제가 다양한 책
- 세대 간 소통과 토론이 가능한 책
- 청소년과 함께 읽고 대화가 가능한 책
- 대전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책
- 작품의 완성도가 있고 흥미나 흡입력이 있는 책

■ 역대선정도서 (2008년 ~ 2024년)

	제목	저자	분야
2008	엄마와 나	박기범	문학
2009	책만 보는 바보	안소영	문학
2010	(어린이) 작은집이야기	버지니아리버튼	그림책
	(청소년) 씹커	배미주	문학
	(일 반) 생태 페다고지	우석훈	환경
2011	크로스	정재승, 진중권	인문
2012	열하일기	리상호	인문고전
	열하일기(청소년들이 연암을 만나자)	리상호	인문고전
2013	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	이충렬	예술
2014	철학자와 하녀	고병권	철학
2015	시인 동주	안소영	문학
2016	소년이 온다	한 강	문학
2017	한 스푼의 시간	구병모	문학
2018	죽은자로 하여금	편혜영	문학
2019	사람의 자리	전치형	과학
2020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사회학
2021	긴긴밤	루 리	동화책
2022	나는 무늬	김해원	문학
2023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	강혜원, 허환주	시사
2024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	김지우	장애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

책제목	4X4의 세계			구분	3
작가	조우리(글), 노은경(그림)	출판사	창비	추천자	조영아
<p>(책 소개)</p> <p>주인공 이름은 '제갈호', 사람들은 '가로'라고 부른다. 오랜 입원 생활로 혼자 빙고하는 기술을 터득하여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보이는 천장의 정사각형 총 16칸으로 빙고 놀이를 한다. 병원 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메모를 발견한다. 메모 작성자는, 본명이 '오새롬'인 '세로'다. 가로와 세로는 메모를 교환하며 우정을 다져 나간다.</p> <p>제29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고학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4x4의 세계>는, 가로가 세로를 만나면서 자신의 세계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장편동화다. 가로와 세로 둘만의 책, 메모, 빙고, 그리고 우정에 관한 몽클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주변 인물들의 사람 내음 가득한 이야기가 곳곳에 채워진다.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손 메모와 빙고를 매개로, 가로와 세로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진다. 4x4 사각의 좁은 세계가 둥글고 넓게 변해가는 과정에 노인경 작가의 온화한 그림이 더해져 한층 더 빛을 발한다.</p>					
<p>(추천이유)</p> <p>어린이의 내면, 돌봄의 현재, 좋은 어른의 모습, 나를 찾아가기 시작한 어린이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유머와 뼈때리는 직설화법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예요.</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

책제목	게임체인저:기본소득			구분	3
작가	이선배	출판사	내일을여는책	추천자	임로빈
<p>(책 소개)</p> <p>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현금인 기본소득! 현실성이 없다는 등 이상적이라는 등 해묵은 논쟁은 집어치우고, 진짜 우리 시대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기본소득을 소환한다!</p> <p>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강기후, 로봇과 AI로 인한 실업을 두려워하는 노분회퍼, 자산과 소득 불평등 현실을 부당하게 여기는 지소유, 가부장제로 벌어진 가정 폭력과 성차별에 분노하는 극득남 그리고 기본소득 옹호자 공유부! 다섯 아이가 가상 게임 공간에 모였다. 갖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없던 아이들에게 가상 공간에서 만난 토머스 페인 할아버지는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각종 갈등과 방해로 인해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p> <p>『그건 내 건데』로 기본소득의 철학과 방법을 알려 온 이선배 작가가 이번엔 어린이 문학으로 재미나고 흥미진진하게 기본소득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냈다. 다섯 아이들과 토머스 페인이 어떻게 기본소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따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독자들도 기본소득 특공대가 되어 있으리라! 여기에 맹하나 그림 작가의 솜씨가 더해져 독자의 상상력을 한층 자극한다.</p>					
<p>(추천이유)</p> <p>기본소득에 대해 아동과 성인 모두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었습니다.</p> <p>공유부의 개념이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해야하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3

책제목	결국 독서력이다(비문학-자기계발)			구분	1
작가	김을호	출판사	클라우드나인	추천자	안재욱
<p>(책 소개)</p> <p>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눈부신데 역설적으로 인류는 점점 더 책을 읽지 못하게 됐다. 유튜브 등 각종 SNS와 넷플릭스 등 다양한 OTT가 발전하면서 독서 안 하는 아니 못 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보면 성인의 57%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한다. 독서 격차도 그만큼 커졌다. 이제 독서는 누구나 하는 취미가 아니라 누구나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기가 됐다.</p> <p>이 책은 10년 넘게 전국 기업과 학교는 물론이고 군부대 장병들에게 헌신적으로 독서와 서평 지도를 해 '독서대통령'으로 불리는 김을호 송실대학교 교수가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독서력을 키우기 위한 생존 독서, 몰입 독서, 극한 독서, 목적 독서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들까지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독서하는 독종만이 살아남고 이길 수 있다. 독서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인 독서로 읽고 성장하기, 비판적 문해력 키우기, 독서 루틴 만들기로 나누어 소개한다.</p>					
<p>(추천이유) 책 대신 유튜브와 SNS를 더 많이 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왜? 지금도 독서가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자기인식의 힘을 키우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변화 시키고 싶다면 책을 아주 절박하게 읽고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갖어볼 것을 추천하는 책이다.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꼭 읽어봐야 하는 아주 멋진 책이라 강력하게 추천한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4

책제목	그냥, 사람(문학-에세이)			구분	3
작가	홍은전	출판사	봄날의책	추천자	최명진
<p>(책 소개)</p> <p>"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향한 홍은전의 마음"</p> <p>저자 홍은전은 노들장애인야학에서 13년간 활동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노란 들판의 꿈>을 썼다. 두 번째로 펴낸 <그냥,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았던 야학을 그만둔 이후의 기록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이 세상의 거대한 비참과 불의에 저항하는 기적 같은 존재들"에 관한 글은 홍은전의 살뜰한 마음과 사려 깊은 문장들로 이뤄진 애뜻한 산문들이다.</p> <p>홍은전의 시선이 가닿은 작고 연약한 존재는 사람과 동물이다.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세월호참사 1주기 광화문광장에서, 강제철거 지역에서,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도살장 앞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뜨겁게 전한다.</p> <p>모욕, 무시, 가난, 차별의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깊은 슬픔과 아픔이 동반된다. 홍은전은 사회의 부조리함과 힘없는 존재들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침묵하지 말고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고 설파한다. 울음을 가까스로 삼키며 이 책을 끝까지 읽어내야만 하는 이유다.</p>					
<p>(추천이유) 인권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p> <p>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인권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권적 시선과 따듯함으로 기록한 가슴이 따 뜻한 책. 그냥 사람으로 함께하기 위한 그 시선이 너무 좋고 위로가 되어 모든 이들이 읽기를 추천함.</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5

책제목	까칠한 재석이 1 ~ 5(문학-청소년문학)			구분	3
작가	고정욱	출판사	애플북스	추천자	최봉호
<p>(책 소개)</p> <p>독자들이 더욱 편하게 고정욱 작가의 성장소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정욱 작가는 매년 300회 내외의 강연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담아냄으로써 사실성과 극적 재미를 동시에 완성한다.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말, 행동, 학교생활 모습 등이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청소년들의 진솔한 삶과 고민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가능하다.</p> <p>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이 출간한 '까칠한 재석'은 청소년 시절의 고민과 아픔, 성장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담고 있는 학원물 성장소설 시리즈다. 기존에 책을 갖고 있던 독자들에게 소장 가치를 위하여 재석이 일러스트가 그려진 박스 포장으로 디자인하였다.</p>					
<p>(추천이유)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내면의 세계를 포현한 것으로 이해하여 신청하게 되었음.</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6

책제목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비문학-자기계발)			구분	1
작가	이일우	출판사	에이원북스	추천자	이정아
<p>(책 소개)</p> <p>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생활정치를 주로 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때문이다. 인력과 예산 규모, 권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를 대형백화점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의회 같은 광역의회는 대형마트로, 서대문구의회나 도봉구의회 같은 자치구의회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p> <p>규모가 작다고 구의회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다. 편의점에도 있을 건 다 있다. 이 책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지방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직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p>					
<p>(추천이유) 지방의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외유성 해외연수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신다고요?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언론에서 봐온 지방의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대선, 총선이 중요하듯이 지방선거도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현직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쓴 이 책은 지방의회의 이모저모를 쉽게 전달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면 좋겠습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7

책제목	나이 늙에 관하여(비문학-사회과학)			구분	2
작가	루이스애런슨	출판사	비잉	추천자	최성진
<p>(책 소개)</p> <p>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바로 《나이늙에 관하여》이다. 현대 의학은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매우 큰 혜택을 가져왔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있듯이 현대 의학은 혜택도 제공했지만 동시에 문제도 가져왔다. 현대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상 실험에서 청장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던 신약들도 노인에게 사용되었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성별, 나이, 인종 등의 특징에 따라 표준화된 치료법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p> <p>나이가 들수록 케어(care)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영어사전에 따르면 care의 뜻은 누군가의 건강, 복지, 생활 유지, 보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이러한 케어의 중요도는 더욱 커진다. 정맥수액, 수술 등의 치료 수단은 분명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환자들의 상황과 맥락은 제각각 다르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치료법도 환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루이즈 애런슨의 책은 겉으로 보기에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 의학과 의료 서비스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p> <p>이 책은 노년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개인성과 복잡성을 간과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산물인 현대 의학을 향한 강력한 자성의 목소리이자, 우리 사회를 향해 던지는 따듯하고 자상한 메시지이다. 《나이늙에 관하여》는 의학계와 사회 복지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통찰을 전달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 《나이늙에 관하여》는 이러한 전환점을 어떻게 잘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p>					
<p>(추천이유) 노년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시점에 환자와 가족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회적 이슈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8

책제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비문학-사회과학)			구분	2
작가	이한	출판사	동아시아	추천자	이대희
<p>(책 소개)</p> <p>혐오의 놀이터가 된 교실, ‘역차별’에 분노하는 이대남, 혼자만의 동굴에 갇힌 아저씨, 사과할 줄 모르는 정치... 가부장적 남성성과 유해한 남성문화는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꿰뚫는 키워드다. 남성과 남성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즘 단체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성평등 교육 활동가인 이한은 페미니즘이 남성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p> <p>페미니즘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자신을 증명할수록 모두가 불행해지는 남성문화에 대한 고찰이자,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한 여러 오해를 해소하고 함께 성평등 동반자가 되자고 건네는 초대장이다.</p>					
<p>(추천이유)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의 '젠더 갈라치기' 이후 극우화된 청년남성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남성성에 대해 고민하는 페미니즘 단체,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님이 쓴 이 책이 한국사회 남성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9

책제목	달콤한 곰 님의 교실에서는(문학-어린이문학)			구분	3
작가	정유경	출판사	천개의바람	추천자	이귀애
<p>(책 소개)</p> <p>바람동시책 7권. 시를 품은 이야기이자 이야기가 있는 바람동시책 7번째 시리즈로, 담임을 맡게 된 선생님이 1년 동안 아이들과 잘 지내겠다는 각오와 생활을 동시와 일기로 풀어낸 이야기다.</p> <p>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선생님이 교실로 향한다.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지 선생님은 교실 문 앞에서 잠깐 긴장한다.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한 아이들은 모두 사랑스럽다. 하지만 아직 처음이라 이름이 헛갈린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 이름이랑 줄임말도 외워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만큼 배우고 외워야 할 게 많은 선생님. 선생님은 1년 동안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달콤한 곰 님의 교실에서는>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하루하루를 엿보는 일기장 같은 동시책이다.</p>					
<p>(추천이유) 아이가 처음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될 때의 설렘과 두려움처럼 새 학기를 맞는 선생님도 설렘과 두려움을 똑같이 겪는다는걸... 아이들이 궁금해 할 우리 선생님의 마음 속을 일상 속을 살짝 들여다보는 동시가 재미있고 따뜻합니다. 선생님 이라는 쉽지 않은 직업에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응원하고 싶어요.</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0

책제목	대전건축여행(비문학-인문학)			구분	1
작가	김예슬	출판사	파이퍼레스	추천자	강승희
<p>(책 소개)</p> <p>김예슬은 10년 넘게 1000곳이 넘는 전국의 건축물을 여행지 삼아 오래된 이야기를 발굴해 온 '건축 여행자'다. 서울의 근현대 건축물을 다룬 『서울 건축 여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에는 한층 깊어진 시선으로 대전과 그 인접 도시들을 여행한다. 대전은 철도가 깔리며 발전한 근대 도시다. 충청도 곳곳에는 근대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거점 역할을 했던 집과 성당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땅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과 같은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건물들은 조용히 과거를 증언하고 있다.</p> <p>아름다운 근대 건축으로 알려진 충남도청사 본관, 성심당의 출발점이 된 대흥동성당, 김수근 건축가의 건물들, 벽돌 벽에 기와지붕을 얹은 한양 절충식 가옥까지. 낯설고도 아름다운 공간들이 역사적 이야기와 함께 펼쳐진다.</p> <p>작가는 벽돌과 타일, 유리 창문과 나무 천장을 들여다보며 시간의 흔적을 읽어낸다. 무수한 발걸음 끝에,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건물들의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들었다. 건물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잊었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p>					
<p>(추천이유) 시간을 품은 건축물에서 목격한 근대의 순간들 건물을 스쳐간 사건과 인물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대전, 청주, 공주, 옥천에서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보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1

책제목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비문학-역사)			구분	2
작가	김선재, 임재근, 정성일	출판사	문화의힘	추천자	최창문
<p>(책 소개)</p> <p>대전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묻힌 국립묘지다.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묘지 안장 10만 106위, 위패봉안 4만 1,365위, 충훈당 봉안 4,949위, 무명용사 유골함 33위 등 대전현충원에는 총 14만 6,443위가 모셔져 있다. 국립묘지에 모셔진 이들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p> <p>김선재·임재근·정성일은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행사를 비롯해 단체와 방문객들이 요청해올 때 해설을 맡아왔다. 그러던 중 그간 활동해왔던 해설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들의 삶과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2023년 9월부터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써서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했고, 이 책은 1년간 연재한 글을 엮은 것이다.</p>					
<p>(추천이유) 최창문 : 카이스트 졸업생 3명의 작가가 대전현충원을 손발로 뛰어다니며 쓴 이 책을 통해서 대전현충원은 무덤이 아닌 대한민국 근현대사 인물사전이 되었다. 홍범도 장군, 손기정 선수, 김구의 어머니와 아들, 미스터션샤인의 실제인물 황기환 등등, 대전현충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심장이 되었다. 안여종 국립대전현충원은 특정한 사람들만 찾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현충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 인물과 역사적 사건들을 쉽고 의미 있게 풀어 놓았다. 이 반갑고, 귀한 책을 대전시민과 꼭 함께 읽고 싶다. 우신엽 :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독립운동·국가폭력·사회공헌 등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층위를 생생하게 조명하며 독자에게 깊은 생각을 이끈다. 대전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이 책은 지역 공간인 대전현충원을 배경으로 공동체 기억과 역사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평범했던 이들의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성찰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올해의 우리 대전 같은 책으로 추천할 만하다. 황인형 : 본 도서는 대전현충원에 잠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책이다. 이를 통해 조국을 위해 자신을 바친 이들의 삶을 성찰해보고, 궁극적으로 독립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임용균: 객관적인 관점에서 대전현충원에 담긴 이야기를 가치중립적으로 잘 전달해 주신다.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선배 : 1. 대전에 위치한 현충원의 이야기를 다룬 점 /2. 대전지역 활동가들이 쓴 책이라는 점 /3. 우리 현대사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2

책제목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비문학-사회과학)			구분	2
작가	이승윤	출판사	문학동네	추천자	박철웅
<p>(책 소개)</p> <p>"불안정 노동에 대한 분석"</p> <p>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정체화하는 힘을 잃었으나, 대부분의 우리는 노동자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수는 불안정 노동자일 것이다. 불안정 노동자라는 단어는 역시나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에게 왠지 이질적인 느낌을 주지만, 구체적인 직업들을 나열 해보면 익숙하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유튜버, 플랫폼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서 기성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노동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다. 말인즉슨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말이다.</p> <p>법과 제도가 보호하는 전통의 일자리 바깥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은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있다. 불안정 노동 연구자인 저자 이승윤은 이 시대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적 특수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허술함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다. 이 책의 특징점은 누가 읽어도 어렵지 않고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는 점이다. 그는 불안정 노동의 특징을 시간과 돈이 모두 부족하다는 뜻인 '이중빈곤'으로 개념화하거나,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한번 안정적인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면 재진입하기 어렵고 삶의 구성 요소들이 망가지는 상황을 '미끄럼틀 타고 쭉 미끄러진'다고 표현하는 등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 언어를 사용한다.</p> <p>그러나 그는 쉬운 전달을 위해 분석의 디테일들을 뭉뚱그리진 않는다. 명확한 데이터와 당사자 발언의 인용들을 통해 그는 현실 노동 문제의 입체적인 모순들을 꼼꼼히 지적한다. 다루는 주제들의 광범위함, 문장의 선명함, 분석의 성실함을 모두 따졌을 때, 이 책은 불안정 노동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서적 위치에 놓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부에서 그는 연구자로서의 딜레마와 윤리적 고민들을 솔직하게 풀어 놓는데, 이 글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태도는 책 전체의 신뢰도를 높인다.</p>					
<p>(추천이유)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유연성의 문제를 실제 취재와 저자의 학문적 깊이를 통하여 잘 정리한 책이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3

책제목	보통일베들의 시대(비문학-사회과학)			구분	2
작가	김학준	출판사	오월의봄	추천자	이태영
<p>(책 소개)</p> <p>"만연한 혐오의 시대, 다시 일베를 들여다보기"</p> <p>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 혐오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베'라는 딱지가 붙었다. 혐오의 강도가 결코 약하진 않았지만 그 시절의 혐오와 반사회적 언행은 일베라는 일탈적 커뮤니티로 게토화되어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혐오를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 일베 내부의 문화는 자연스레 더 큰 사회로 흘러나왔고 이제 일베와 일베 아님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 일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혐오가 퍼지는 방식, 약자를 멸시하고 차별의 자유를 외치며 정치적 유희를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는 일베의 논리와 흡사하다. 하여, 이 책은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혐오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일베를 말한다.</p> <p>저자는 2014년 화제를 일으켰던 논문,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을 쓴 김학준이다. 이후 8년, 혐오가 깊고 넓어지는 동안 그는 일베가 탄생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 일베 데이터의 분석, 일베의 특수성과 일반성에 대한 분석 등 논문의 내용을 확장하여 이 책을 펴냈다. 책엔 일베에 대한 구체적이고 뽁뽁한 증언과 분석이 담겼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이 책을 '안전'하게 타자화된 일베라는 '작은' 서클에 대한 이야기로 읽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문제화된 집단'을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치와 그에 따른 사회적 삶의 변형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책이 목표하는 바를 강조하며 추천했다. 일베 하지 않는 평범한 일베들의 시대, 장난스럽고 살벌한 혐오의 기원을 짚어보는 책이다.</p>					
<p>(추천이유) 이준석과 이대남 그리고 온라인 세계 이해하기</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4

책제목	뿔라스틱(비문학-교양서)			구분	1
작가	김성화, 권수진	출판사	만만한책방	추천자	서은경
<p>(책 소개)</p> <p>""우리는 오래오래 쓰이는 반려 물건이 되고 싶어요""</p> <p>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구성으로 여러 좋은 어린이책을 출판해온 만만한책방 출판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만한수학> <만만한국어> 시리즈의 뒤를 잇는 새로운 시리즈를 펴냈다. 환경 위기에 놓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구 생태 시리즈 <지구를 생각한다>, 그 첫 권으로 플라스틱을 다룬다.</p> <p>자주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환경책들은, 인간에 의해 오염된 지구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거나, 오염된 환경 복원을 위해서 오염 물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맥락의 내용으로 흐른다. <뿔라스틱>은 뿔난 뿔라스틱의 시점에서 재치 넘치는 스토리를 펼쳐간다. 귀여운 그림과 그림 옆의 재미난 깨알 대사마저 이 책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베개, 우산, 기저귀, 우주복 등,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수많은 물건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플라스틱을 누가,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등, 사실적인 정보를 쉬운 언어로 슬쩍 슬쩍 들려주기도 한다. 이 책이 특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바로, 뿔라스틱의 마지막 대사 한 줄에 있다. 인간의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버린 자신들을 함부로 사지도, 버리지도, 쓰지도 말라고 말하며 외친다. "당신의 '반려 플라스틱'이 되고 싶습니다!"</p>					
<p>(추천이유) 이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절실해지는 시대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플라스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재밌으면서도 서늘하게 이야기하고 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5

책제목	쇼펜하우어 인생수업(비문학-인문학)			구분	1
작가	쇼펜하우어	출판사	하이스트	추천자	박경은
<p>(책 소개)</p> <p>니체,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등 세계 거장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모든 지혜를 이 책에 담아냈다! 단언컨대 인생을 바꿔줄 단 한권의 책이다.</p>					
<p>(추천이유) 삶을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6

책제목	안녕, 주정뱅이(문학-소설)			구분	3
작가	권여선	출판사	창비	추천자	김도훈
<p>(책 소개)</p> <p>2007년 제15회 오영수문학상, 2008년 제32회 이상문학상, 2012년 제44회 한국일보문학상, 그리고 2014년 '작품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장인의 경지'에 올랐다는 상찬을 받으며 장편소설 <토우의 집>으로 제18회 동리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권여선이 다섯번째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를 선보인다.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겨울까지 바지런히 발표한 일곱편의 단편소설을 묶었다.</p> <p>한국문학의 특출한 성취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권여선의 이번 소설집은 이해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험사리 잊히지 않는 지난 삶의 불가해한 장면을 잡아채는 선명하고도 서늘한 문장으로 삶의 비의를 그려낸다. 인생이 던지는 지독한 농담이 인간을 벼랑 끝까지 밀어뜨릴 때,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불행을 견뎌낼 수 있을까. 미세한 균열로도 생은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탁월한 감각을 발휘해온 권여선은 그림에도 그 비극을 견뎌내는 자들의 숭고함을 가슴 먹먹하게 그려낸다.</p>					
<p>(추천이유) 대략 10년 전 출간된 꽤나 오래전 작품이지만 당시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의 설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 지인의 초상이 비치곤 합니다. 요새 보이는 어두운 이야기는 때론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선사하여 피로감을 주지만 권여선 작가님의 글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7

책제목	엄마의 말연습(비문학-인문학)			구분	1
작가	윤지영	출판사	카시오페아	추천자	한빛찬
<p>(책 소개)</p> <p>『초등 자존감 수업』을 쓴 윤지영 작가의 신작 『엄마의 말 연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고 후회하는 엄마들을 위한 책이다.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윤지영 작가는 직접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무엇인지, 반대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존중의 말’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분석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 책에는 잘못된 말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솔루션과 다양한 예시가 들어 있어, 말하기에 서툰 사람도 따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존중의 말을 입에 익힐 수 있다.</p> <p>아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세상 사는 법을 배운다. 오늘 사랑하는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자. 그리고 『엄마의 말 연습』을 읽으며 진심을 전하는 법을 익혀보자. 씩씩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p>					
<p>(추천이유) 현직초등교사이자 엄마인 저자가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읽고 실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감정적인 말이 상처를 남기는 시대에, 회복적 언어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대전시민 모두에게 추천합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8

책제목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문학-청소년문학)			구분	3
작가	이꽃잎	출판사	문학동네	추천자	배미숙
<p>(책 소개)</p> <p>"첫사랑으로 인해 새로 쓰이는 계절, 여름" 이 꽃님의 첫 번째 연애소설. 청소년 문학 최고의 페이지터너 이꽃님이 가슴 설레는 이야기로 돌아왔다. 가족에 관한 아픔을 가진 두 아이 하지오, 유찬의 열일곱 여름, 고통스러울 것만 같았던 계절이 눈부시게 찬란한 둘의 계절로 변해간다.</p> <p>5년 전 화재사건으로 인해 듣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리는 유찬, 우연히 같은 동네로 전학 온 하지오와 가까이 있지만 하면 고요가 찾아오는 경험을 한다. '어떤 속마음도 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태어나선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하지오, 엄마를 지키기 위해 유도를 시작했을 만큼 엄마를 향한 애정이 각별하다. 엄마의 병환으로 존재조차 몰랐던 아빠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떠밀리듯 번영으로 오게 되는데, 우연히 마주친 유찬이 어딘가 이상하다. 필연인지 우연인지 두 아이는 같은 반이 되고 유찬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이 하지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몰라, 왜 그런 건지. 그냥 너는 특별해." (81쪽)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자 작은 희망으로 하지오에게 다가선 유찬, 갈수록 그 이유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p> <p><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는 하지오, 유찬 두 아이의 시선을 번갈아가며 서술된다. 열일곱의 소용돌이치는 감정들과 첫사랑의 두근거림, 뜨거운 여름이 청량한 여름으로 번지는 첫사랑 이야기, 이꽃님 작가의 말을 전한다. "이 소설은 내가 쓴 이야기 중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이다."</p>					
<p>(추천이유) 청소년 소설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좋을 책, 여름에 읽고 싶은 책</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19

책제목	오역하는 말들(문학-에세이)			구분	3
작가	황석희	출판사	북다	추천자	강승희
<p>(책 소개)</p> <p>영화 <데드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보헤미안 랍소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으로 ‘메가 히트작’을 떠올렸다면 그것도 맞다. 하지만 다른 하나가 더 있다. 바로, 이 영화들의 한국어 자막이 모두 같은 번역가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예상했겠지만 바로 황석희 번역가다.</p> <p>대중에게 친근하게 와 닿는 재기발랄한 번역으로 잘 알려진 그가 이번에는 영화가 아닌 현실 세계를 번역한다. 흔히 번역이라고 하면 영어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프랑스어와 같이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의 번역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럼 같은 한국어끼리는 어떨까. 오늘날 우리는 서로의 말을 문제없이 이해하며 소통하고 있을까. 황석희 번역가의 신간 《오역하는 말들》은 번역가의 시선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본 일과 일상 속 오역들에 대한 이야기다.</p> <p>20년간 번역 일을 해 왔지만 “계속 나를 단속하지 않으면 별 생각 없이 번역체를 쓰고 넘어가 버린다.”라며 익숙한 문장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려 애쓰는 그는 같은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본다. “우리끼리는 좀 더 애정을 쏟아 서로의 원문을 살피야 하지 않을까.” 하며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누굴 욕하든 궁지에 몰든 몰아붙이든 그 사람이 숨이라도 한번 크게 쉬도록 그의 남은 땅은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부턴가 서로 지적하기에 급급한 사회를 유심히 들여다본다.</p> <p>우리는 주변만 오역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나의 진의조차 오역한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치일 때일수록 자신의 여정을 오역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도 잊지 않는다. 드라마 <파친코>,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등을 번역할 때의 비하인드는 번역에 관심 있거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흥미로울 에피소드다.</p>					
<p>(추천이유) 같은 언어에도 번역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번역가의 시선으로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본 우리 일상 속 오역, 오해, 그 말에 대하여.. 말들이 만나고, 스치고, 부딪히고, 흩어지며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의미들.. 오늘 우리는 어떤 번역을 했을까.</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0

책제목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 낼거야(비문학-교양서)			구분	1
작가	이병주	출판사	다산어린이	추천자	김신일
<p>(책 소개)</p> <p>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한 청소년들, 무력감 대신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기후 위기가 악화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말하며, 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기후 소송을 이야기한다.</p> <p>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 이야기는 마치 직접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독자들이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롤플레이팅 게임 설정으로 시작하는 만화와 함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과 기후 문제를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풀어냈다. 눈에 쏙 들어오는 편집과 다양한 구성 덕분에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p>					
<p>(추천이유) 아시아최초 기후위기 소송이야기. 기후위기의 시대에 모든 세대가 기후위기에 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책.</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1

책제목	인간의 시간			구분	3
작가	이강산	출판사	눈빛	추천자	강신철
<p>(책 소개)</p> <p>여인숙 달방에서 367일간 머물며 만난 사람들의 일상, 대화, 삶의 풍경을 문장과 사진으로 섬세하게 담았습니다.</p>					
<p>(추천이유)</p> <p>실제 삶의 단면을 투영한 휴먼 다큐멘터리로서 사진가로서의 정교한 시선과 작가로서의 사유가 결합된 결과물로, 독자로 하여금 ‘타인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p> <p>‘여인숙’이라는 흔하고도 낯선 공간을 통해 시민사회, 복지, 인간관계의 본질을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정서적 묘사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정책과 현실을 말하는 지성도 함께 담겨 있어, 단순한 감상용 에세이를 넘어서는 깊이를 제공합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2

책제목	일할 자격(비문학-사회과학)			구분	2
작가	희정	출판사	갈라파고스	추천자	정혜용
<p>(책 소개)</p> <p>"낙인찍힌 노동자들이 보는 일의 세계"</p> <p>취준생 땀 위염과 전쟁을 했다. 불안증과 위염, 발진이 번갈아가며 괴롭혔다. 단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존재의 어떤 부분들을 깎고 녹여, 견고하게 각 맞춰 짜인 노동자라는 틀에 옥여넣은 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다. 노동자라는 옷이 이미 익숙해진 현재에 이런 감상은 조금 기만적일 수도 있겠으나 책의 초반부를 읽으면서 그때의 감정이 자주 겹쳤다.</p> <p>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상) 노동자'의 기준은 상당히 협소하다. 이 책은 그 기준과 우리가 노동자라는 자격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해 질문한다. 사회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바깥에서 자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홀로 양육하는 여성들, 정신질환을 겪는 여성들, 노년 돌봄 노동자 등을 인터뷰하며 책은 노동시장이 지정하는 정상성의 기준이 품은 폭력성을 지적한다.</p> <p>그러나 노동은 굴레일 뿐만 아니라 자아의 일면을 지지하는 기둥이 되기도 하기에, 노동을 대하는 태도엔 복잡한 마음이 겹친다. 저자 희정은 성실한 노동자로서 지녀온 가치관과 노동의 견고한 정상성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의 혼란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공감과 의문을 겹쳐가며,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지점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던지는 책이다.</p>					
<p>(추천이유)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 노동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3

책제목	증명과 변명(비문학-인문학)			구분	1
작가	안희제	출판사	다다서재	추천자	이태영
<p>(책 소개)</p> <p>‘이대남’ 혹은 ‘잉여’... 동질적이고 단일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던 한국 청년 남성. 『난치의 상상력』 『망설이는 사랑』의 작가 안희제가 한국 사회에서 폭력과 차별의 주체로 기능할 뿐 서사를 갖지 못하는 청년 남성의 생애사를 다시 쓰고자 한다.</p> <p>『증명과 변명』은 오랫동안 우울과 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고 죽음을 계획한 20대 남성 우진과의 내밀한 대화를 통해 한국 사회가 구조화하는 전형적인 청년 남성의 삶을 그려내는 동시에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한 청년이 사회로 진입하며 어떻게 희망을 잃고 좌절해가는지 추적한 기록이다.</p> <p>문화인류학, 사회학, 철학, 정신분석학 이론에 기대어, 특히 퀴어 이론의 언어를 빌려 친구를 이해하고 분석하려 한 이 작업은 망설임과 고뇌로 가득하지만 저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젠더, 계급,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이다.</p>					
<p>(추천이유) 한국남성 특히 20-30 남성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요.</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4

책제목	지구 끝의 온실(문학-소설)			구분	3
작가	김초엽	출판사	자이언트박스	추천자	김아진
<p>(책 소개)</p> <p>"당신이 이 세계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면"</p> <p>등장과 동시에 '힙합썸'의 풍경을 바꾼 센세이셔널한 MC의 등장처럼, 김초엽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착했다.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2019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품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20만 독자에게 사랑받았고 '한국에는 SF 독자가 없다'는 통설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SF 생태계 내부의 왕성한 활동부터 <사이보그가 되다> 등의 저작을 통해 낸 사회적인 목소리까지, 김초엽의 이야기는 2020년대의 풍경을 조각하고 있다.</p> <p>김초엽 첫 장편소설. 더스트로 멸망해버린 세계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1장은 2129년 더스트생태연구센터에서 덩굴식물 모스바나에 대해 연구하는 아영의 이야기. 2장은 2058년, 더스트를 피해 돔 안에서 도시를 이루고 사는 시대, 돔 없이 숲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 나옴이의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 이 두 이야기가 만나 세계의 멸망에 관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p> <p>출간 전 알라딘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초엽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매우 극심하던 때' 이 소설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타인과 세계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한 작가의 마음이 무성한 숲을 꿈꾸게 한다.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면서도 우주선을 탄 <우.빛.속>의 할머니 과학자처럼, 나옴이와 아마라는 이 절멸의 세계에 식물을 퍼뜨리기 위해 호버카를 탄다. "타인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는 게 가능했던 사람들"(226쪽)만이 살아있는 세계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 이 세계를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도 김초엽이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p>					
<p>(추천이유)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원초적 불안에 관한 이야기,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잘 전달되는 책입니다. 청소년 이상의 전연령이 함께 읽기에 좋은 우리작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5

책제목	커먼즈란 무엇인가(비문학-사회과학)			구분	2
작가	한디디	출판사	빨간소금	추천자	한준석
<p>(책 소개)</p> <p>"자본주의를 넘어서 삶의 주권 탈환하기"</p> <p>상상해 보자, 소유와 교환, 화폐를 뺀 사회적 관계를. 사적 소유를 삶의 기본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에게 이는 가장 어렵고 도발적인,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요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이후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p> <p>이 책은 커먼즈의 개념과 커먼즈 운동을 둘러싼 담론들, 그리고 한국 내 동시대 커먼즈 운동의 모습까지 망라하여 소개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론과 의심해 본 적 없는 세계의 규칙들의 텅 빈 근거를 조목조목 짚으며 책은 현재의 경제, 정치 형태가 어째서 정답이자 진리가 아닌지, 커먼즈는 어째서 그저 이상이 아니라 단단한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설파한다. 불안한 개인의 삶,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불평등, 붕괴되는 전 지구적 생태...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고 삶의 주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커먼즈를 발견하고 재감각해야 한다. 이대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내면의 소리를 들은 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서 안내하는 지도를 따라 움직이고 싶어지리라 믿는다.</p> <p>커먼즈라는 개념은 언뜻 낯설어 보이고 낯선 것은 늘 모종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새로운 세계에 발 들이는 이방인이 겁먹지 않도록 최대한 상냥하고 친절하되, 알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하고 빠삭하다는 것이다. 저자의 다정함과 성실함의 힘이 여실히 느껴지는 책이다. 입문서가 가져야 할 모든 미덕을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게 채웠다.</p>					
<p>(추천이유) 분열과 공격을 강요받던 시기를 지나 사람 사는 세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누리고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으로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같이 읽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6

책제목	팩트체크 (비문학 -사회과학)			구분	2
작가	JTBC 제작팀	출판사	중앙북스	추천자	장준혁
<p>(책 소개)</p> <p>"거짓 정보에서 사실을 가려내는 일의 의미"</p> <p>JTBC 뉴스룸은 최근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손석희 앵커의 지지율 영향도 있겠지만, 내용으로 꼽는다면 간판 코너 '팩트체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팩트체크는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코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 덕분에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졌지만 논의의 바탕이라 할 사실 확인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각양각색 말과 글이 근거로 삼는 팩트가 얼마나 팩트인지 확인하는 일은 꼭 필요했으나 쉽사리 나서는 이가 없던 일이기도 하다.</p> <p>'팩트체크'는 스스로 팩트라는 기준 속에 들어가 팩트에 어긋난 이야기를 팩트인 양 쏟아내는 거짓말쟁이를 고발하는 동시에, 팩트를 바탕으로 사건과 사태를 바라볼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복잡한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간명한 팩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렇게 머릿속을 비우고 나면 비로소 사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사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말이다.</p>					
<p>(추천이유) 이 책은 JTBC의 팩트체크라는 프로그램을 책으로 만든 것이다. 이 책은 상식, 경제, 정치등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파트별로 제시하고 그 사례의 원인, 사건 분석, 해결 방안등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기를 수 있고 사회적 내용을 판별하고 내용을 분석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7

책제목	한국인의 탄생(비문학-역사)			구분	2
작가	홍대선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추천자	김상기
<p>(책 소개)</p> <p>한반도에서는 개인들이 살아남기도, 또 국가로서 살아남기도 힘들었다. 살아남아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인만의 여러 특질이 만들어졌다. 《한국인의 탄생》은 그 과정을 세 명의 인물(단군, 고려 현종, 정도전)과 세 개의 키워드(생존, 전쟁, 혁명)로 살핀다.</p> <p>단군은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잡았고, 고려 현종은 한민족을, 정도전은 한국인 개인들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이고, 혹은 그들 세 명의 현재형이다. 나와 우리의 기원을 쫓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탐구 생활로 초대한다.</p>					
<p>(추천이유) 작년을 비롯하여 최근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에 선정된 책 중 역사서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역사서가 선정되기 바라며, 한국인의 탄생을 추천합니다.</p> <p>한국인의 탄생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한국인 맞춤형 민족사, 생활사, 정치사, 전쟁사입니다. 수험용 또는 입시용 한국사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인 한국인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반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8

책제목	행복도시 꾸리찌바(비문학-사회과학)			구분	2
작가	박용남	출판사	더블북	추천자	이선배
<p>(책 소개)</p> <p>전 세계가 주목하는 브라질의 생태도시 꾸리찌바에 대한 책이다. 저자의 전작 《꿈의 도시 꾸리찌바》가 출간된 2002년 이후 꾸리찌바의 이야기와 정책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상세히 정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2000년 이후 몇 차례 더 꾸리찌바를 방문한 것은 물론이고 10여 년 전 페이스북에 가입한 이후 꾸리찌바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두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학자로서 30년에 걸쳐 꾸리찌바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한 노력이 《행복도시 꾸리찌바》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 힘이라 하겠다.</p>					
<p>(추천이유) 1. 저자가 대전, 세종 지역민이신 박용남 도시연구가 2. 2026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 3. 전작 꿈의도시 꾸리찌바에 이어서 행복도시 꾸리찌바를 통해 도시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 4. 책 자체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는 점</p>					

2025년 추천도서 소개 29

책제목	혼모노(문학-소설)			구분	3
작가	성해나	출판사	창비	추천자	진창희
<p>(책 소개)</p> <p>"진짜배기 소설의 신명에 홀려"</p> <p>압도하는 어떤 영화를 보면 영화의 기에 놀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와중에 숨을 골라야 한다. 교수자와 연주자가 충돌하는 <위플래시>(2015)의 속도감, 홀린 듯한 굿판이 펼쳐지는 <곡성>(2016)의 광기가 훑아붙는 느낌. 성해나의 두번째 작품집 <혼모노>가 꼭 그런 소설이다.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 자기중심적인 시아버지와 '타이거 마더'인 며느리, 비윤리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감독과 그를 비난하거나 그의 팬이 되는 대중, '태극기부대' 노인과 한국계 미국인 예술종사자 같은 대비되는 인물들을 링 위에 올린다. 그들이 맞부딪치는 순간 불꽃이 튀고 "작가의 '신명'이라 불"릴(추천사, 이기호) 만큼 "질투 나는 재능"(추천사, 박정민)이 쏟아진다.</p> <p>2024년과 2025년 젊은작가상, 2024 이효석문학상 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독자의 지지를 얻은 성해나의 최신작이 실렸다. 잘못된 우상은 끝이 없기에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도 시의적절하고, 대 무속의 시대에 벌어지는 <혼모노>의 굿판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덕질 #길티플레저 #진짜가짜 #남영동대공분실 #건축 #스타트업 #농촌재생사업 각 소설을 소개하는 해시태그를 따라 내게 꼭 맞을 아드레날린을 처방해보면 좋겠다. 트레드밀 위에서 한참 달리다 평지를 처음 디딜 때의 멀미처럼, 각 소설이 품은 자극이 보통 맛이 아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신명나는 이야기를 즐겨본 독자라면 이 작가를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p>					
(추천이유)					

2025년 추천도서 소개 30

책제목	휘말린 날들(비문학-사회과학)			구분	2
작가	서보경	출판사	반비	추천자	이윤경
<p>(책 소개)</p> <p>‘감염’은 이제 낡은 화두가 된 것 같다. 팬데믹에서 엔데믹까지를 경험하며 한국 사회는 그간 다루지 못한 담론을 많이 얻었다. 재난은 어떻게 불평등하게 배분되는가, 왜 ‘돌봄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가부터 출발해 질병과 장애에 관한 담론도 확장되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정말로 감염이라는 화두를 온전히 소화한 걸까? 엔데믹으로의 전환, 일상으로의 복귀 속에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 놓치고 지나온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팬데믹 초기, 확진자에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사생활의 동선이 전국민에게 공개되던 당시의 공포는 분명 질병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도 ‘몇 번 환자’가 되어 동선이 공개된다면 비난당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여전히 감염은 개인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여겨지고, 감염병에 걸린 사람 개개인은 질병 그 자체보다 낙인과 싸워야 한다.</p> <p>『휘말린 날들』은 어쩌면 가장 그러한 낙인이 공고하게 찍혀온 HIV/AIDS를 바탕 삼아 이 같은 문제들을 다시 돌아보자고 제안하는 책이다. 의료인류학자이자 HIV/AIDS 인권운동 활동가인 서보경은 ‘앞줄에 선 사람들’, ‘먼저 휘말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HIV 감염인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혹은 숨거나 도망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염이라는 사건을 한발 앞서 겪은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불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숨겨진 상실과 함께 나누지 못한 애도의 기억, 그리고 어떻게 다른 세상을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담한 통찰이 깃들 이 이야기들을 문화기술지의 형식,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 스스로 마주하고 겪어온 경험들을 경유해 길어낸다. 그럼으로써 감염이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일’임을, 그리고 우리의 존재 조건임을 논파한다.</p>					
<p>(추천이유) 질병에 대한 낙인과 HIV/AIDS와 함께 사는 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책으로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며, 문체가 아름다운 책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질병에 대한 낙인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낙인이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을 혐오하는 문화로 이어져왔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p>					

2025년 우리대전같은책읽기(목록)

no	도서명	작가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구분	문/비문
1	4×4의세계	조우리	창비	2025	어린이문학	문학
2	게임체인저:기본소득	이선배	내일을여는책	2024	어린이문학	문학
3	결국 독서력이다	김을호	클라우드나인	2024	자기계발	비문학
4	그냥, 사람	홍은전	봄날의책	2020	에세이	문학
5	까칠한 재석이 1~5 중	고정욱	애플북스	2017	청소년문학	문학
6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이일우	에이원북스	2022	자기계발	비문학
7	나이듦에관하여	루이스애런슨	비잉	2020	사회과학	비문학
8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이한	동아시아	2025	사회과학	비문학
9	달콤한 곰 님의 교실에서는	정유경	천개의바람	2025	어린이문학	문학
10	대전건축여행	김예슬	파이퍼레스	2025	인문학	비문학
11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김선재, 임재근, 정성일	문화의힘	2024	역사	비문학
12	보이지않는 노동자들	이승윤	문학동네	2024	사회과학	비문학
13	보통 일베들의 시대	김학준	오월의봄	2022	사회과학	비문학
14	뿔라스틱	김성화, 권수진	만만한책방	2024	교양서	비문학

no	도서명	작가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구분	문/비문
15	쇼펜하우어 인생수업	쇼펜하우어	하이스트	2025	인문학	비문학
16	안녕 주정뱅이	권여선	창비	2016	문학(소설)	문학
17	엄마의 말연습	윤지영	카시오페아	2022	인문학	비문학
18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이꽃잎	문학동네	2023	청소년문학	문학
19	오역하는말들	황석희	북다	2025	문학(에세이)	문학
20	우리는 기후위기를 끝낼거야	이병주	다산어린이	2025	교양서	비문학
21	인간의 시간	이강산	눈빛	2023	문학(시)	문학
22	일할 자격	희정	갈라파고스	2023	사회과학	비문학
23	증명과 변명	안희제	다다서재	2024	인문학	비문학
24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자이언트박스	2021	문학(소설)	문학
25	커먼즈란 무엇인가	한디디	빨간소금	2024	사회과학	비문학
26	팩트체크	JTBC	중앙박스	2016	사회과학	비문학
27	한국인의 탄생	홍대선	메디치미디어	2024	역사	비문학
28	행복도시 꾸리찌바	박용남	더블북	2025	사회과학	비문학
29	훈모노	성해나	창비	2025	문학(소설)	문학
30	휘말린 날들	서보경	반비	2023	사회과학	비문학

*추천 도서 중 출판년도가 붉은색 표시인 경우, 2022(최근 3년 이내)년 이전의 도서이므로 후도도서 7권 목록에서 제외됩니다.